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중앙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비정림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찬형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요금	1736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3월 11일 금요일	Issue No.	1736
		Date	March 28, 1969: Fri

## 비에트콩과 비공식회담의 용의 추남비에트남 대통령 언명

(사이공 3월 25일 밤, 에이피) 추남비에트남 대통령은 25일의 기자회견에서 "남비에트남 정부는 민족해방전선과 비공식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이것은 파리 위대 회평 회담에 있어서의 비공식 도의의 하나도, 이미 우리의 의향은 해방전선 대표에 전해지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해방전선측의 회담은 아직 없는데, "동의할 것으로 믿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또 추대통령은

1. 현재는 54만 5백명의 남비에트남 주류 미군 병력의 철퇴에 대해서 말할 때가 아니다.
1. 현시점에서 북쪽을 재개하는 것이 공산군 진공세에의 적절한 대응조치라고 생각지 않는다.
1. 닉슨 행정부의 의사의 소류는, 존슨 행정부 시대와 마찬가지로 만족할 만한 상태에 잇는데, 파리 회담에서의 미국 수석 대표의 견해는, 해리 맨젠 대표보다 랫지 험 대표와 더 조계 지내고 있다. 동의 점을 명백히 하였다.

## 미당국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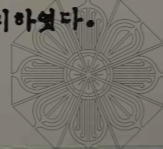
(와싱톤 25일 밤, 에이피) 추남비에트남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 당국은 "파리 회담에 큰 유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환영하고 있다. 민족해방전선과의 비공식 회담에 참석한다는 남비에트남 정권의 태도는, 와싱톤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있고, 파리 회담 각 대표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나, 이번 그것이 공개의 석상에서 확인된 것이다.

## 비에트콩은 평화를 회피

(파리 25일 밤, 에이피) 민족해방전선대변인은 "추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곧은 평할 수 없다" 라고 말하였다.

## 파리 회담 이외에 미국, 비밀교섭 진전

(와싱톤 3월 22일 밤, 에이피) 레아드 미국 방장관은 21일 상원군축분과위원회에서 증언하고, 미국이 파리 회담 이외의 장소에서 비에트남 회평을 위해서, 비밀교섭을 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이언명은 "닉슨 대통령은 비에트남 전쟁 종결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라는 폴 루카치드 상원의고 위원장의 비난을 반론하는 형태로 나왔다. 레아드 장관은 "회평에의 노력에 파리 회담과 의외정도를 통해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비공식의 정토"에서도 진전되고 있다" 라고 말하였는데, 현재의 시점과 이 장소에서 상세히 하는 것은 조정을 불확하게 한다고 말하고, 비밀교섭이 북비에트남 또는 해방전선과의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지, 또는 제삼자를 끼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피하였다.



## 비밀교섭으로 평화를 누순 대통령이 강조

(워싱턴 3월26일 밤, 공동) 니슨미대통령은 25일, 전미방송해설자협회 회의 회답에서 현설, 비에트남전쟁의 종결에는 공식의 교섭보다 비공식의 회담에 의해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다음 파악이 많았었다. 우리는 전쟁중점을 통해서 어머가지 방법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있는데, 현재 각각의 대포를 초대하여 계속 의견을 듣고 새로운 운동을 하고있는데, 우리가 울른 길에 올라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회담이 곧 실현한다든가, 미군이 철퇴한다든가하는 말은 너무 크다. 나는 모든것을 다 어노코하는 성공을 희망하고있는데, 비에트남교섭은 비밀리에 하는것이 좋다. 교섭에 의한 평화를 요구하는 경우, 공식의 회의가 아니고, 비공식의 하협이 아니면 안된다.

## 이동농민, 죽업의 행진 파키스탄 정세

(가라치 3월25일 밤, 공동) 동파키스탄으로부터 가라치에 도착한 영국여행자가 24일 판안바에의 하면, 동파키스탄에서는 기근지대의 수천명의 농민이 살인 약탈을 하면서, 닷가에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농민들은 도중, "인민법정"을 열고, "부패분자"로 인정된 인물은 체포하여 사형에 부치고, 논밭을 배고, 고문을 하고, 폭행을 가고있다고 한다. 동파키스탄의 각지는 이행진을 "죽업의 행진" 이라고 불르고있다. 한편 닷가에서는 이 "죽업의 행진"에 대해하여, 시민들이 방위위원회를 조직하고, 무장을 시작하였다.

## 파키스탄에 계엄령, 군부가 정권장악

(인도 뉴데리 25일 밤, 에이피) 파키스탄방송에 의하면, 아우부.칸.파키스탄대통령은 25일 파키스탄 전토에 계엄령을 부고, 야이아.칸육군장관에 사령권을 주었다. 동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금 정세가 악화하는것을 볼수있다. 정부에는 동서 양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있는 폭동을 억제하는 힘은 없다. 지금 의회를 소집하여도 유형을 초태한 다름이다" 라고 말하고, 국민에 군부에 협력하여 질서를 회복하도록 호소하였다고, 동방송은 전하고있다. 아우부.칸대통령자신, 11년전 같은 정치위기를, 계엄사령권으로서 정권을 쥔 사람이다. 파키스탄방송은 대통령은 3개월의 유가를 띠었다고하는데, 국내에 남아있을것지는 아직 말하지안했다.

## 파업과 시위를 금지

(가라치 26일 밤 에이피) 아우부.칸전파키스탄대통령으로부터 최고급관을 위상받은 야이아.칸 육군사령관은 26일, 혼란한 국내정세의 질서회복에 나서서, 다음파악은 계엄령을 공포하였다.

1. 약탈, 방화, 강도등을하여 체포된자는 사형에 처한다.
1. 파업, 시위, 정치집회를 금지하고, 출탄의 검열을한다.
1. 계엄령실시를 비판하는자에는, 10년간의 징역형을 입도한다.
1. 군사법정을 설치한다. 야이아.칸사령관은 테이디오방송에서 전국민에향해서, "나는 인민정체의 확립에향하는 상상을 만드논이 외에 아무 야심이없다. 군부는 어떠한 개인도 정당도 지지할수없다" 라고 현설하였다. 또 25일밤부터 24시간이내에 무기.한약을 가까이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호소하였다. 호소한 야이아.칸사령관은 52세, 금년초에 모스모바, 북경을 방문하고있는데 친구타파, 친머파도 알려져있는 사람, 제2차대전중에는 이태리, 중동에서 영국군에 협력하여 싸웠다. 62년 동파키스탄군사령관에 취임, 65년이때 최고사령관 계엄령에의한 파업금지에도불고 가라치에서는 다수의 공장이 폐쇄안쳐모있다. (제3편에 계속)



(제2편으로부터 계속)

또 간오부, 7개스, 철도노동조합도 파업을 포고하고, 마키스란국제항공의 종업원도 비행사이아 직장을 포기하고있기때문에, 거의 비행이 정지되고있다.

### 이스라엘 군용기가 울단을 공습

(이스라엘.델아비부 3월25일밤, 에이피) 이스라엘군의 발표에의하면, 이스라엘군용기수기는 25일 울단의 동부 산도부근의 유격대거점을 공습하고 타격을 주었다. 산도는 울단강유역선의 동방 10마일, 수도 안만의 서방 15마일에있다. 또 군부의 권위측은 24일의 이스라엘.에지프트 양군의 포격전에서, 이스라엘군은 스에즈운하남단의 포트.스에즈의 정유공장, 항만시설에 타격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 한도란 영격미사일 문제는 미해결 캐나다는상당

(워싱턴 3월26일밤, 에이피) 도류도.캐나다수상은 니슨대통령과 2일간에걸친 회담을마치고, 26일 아침 귀국하였는데, 귀국전의 기자회견에서 동수상은 "한도란영격미사일에 관한 기술면에서는 정보를 얻었는데, 도륙적.정치상의 문제에서는 일주일전과 조공도 변치안모있다" 라고 말하였다. 한도란영격미사일망의 제1차진입기지는 온태나주와 북다모다주로, 캐나다에서는 한도란영격미사일의 핵미사일이 방사되는경우, 캐나다의 영공이 오염되어, 국내에 즉입의 재를 뿌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는지금 얻은 정보를 가지고 귀국하여 각료에 전할 따름이다" 라고 도류도수상은 말하였다.

### 부가세 연장을 누순대통령이 정식요청

(워싱턴 26일밤, 에이피) 니슨대통령은 26일 국회에 특별공서를 보내고, 연방의 연방소득세 10% 부가세를 일년간 연장할것을 요청하는동시에, 정부로서는 연방예산지출액의 상당한 절약을 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은 또 예정된 전화, 자동차관세의 소비세감세시기를 연기하도록 요구하였다.

### 사회보장법은전 증액 예정

(워싱턴 26일밤, 에이피) 양모년공동 사회보장법의 승진증액의 가능성에대해서 정부측은, 증세 하지안코, 내년도승진증가가 가능하다고 시사하고있다. 그러나 동측은 최종적결정이 되어있지 안라는것을 강조하였다. (한편의 보도에의하면, 니슨대통령은 사회보장은전액의 7%증가와 또 필요한 증세에대해서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하고있다. 대통령으로서의 승진증액을 내년도에 실시하고싶다고한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 중태

(워싱턴 26일밤, 에이피) 아이젠하워전대통령의 병세는 여전히 중태가 계속되고있다. 윌러.리드 미육군병원의 발표에의하면, 어제밤에는 안민하고, 단시간 가족과 면회하였는데, 병원의 처치에도 불모하고 심장의 응혈장애는 아직도 회복되지안고있다.

### 오기나와키지의 현상유지를 희망

(서울 25일밤, 공동) 한국의 최규하의무장관은 25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오기나와키가 군사 기지로서 현상대로 계속 유지될것을 기대하고 최대의 노력을한다" 라고 다음파장이 말하였다. 오기나와키지는 동북아세아의 안전에 직결되는것이기때문에, 한국으로서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사기지로서의 가치가 계속유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있다.

(제4편에 계속)



(제3면으로부터 계속)

한국은 5월에 뱅쿠에서 개최되는 비에트남참전 7개국 외상회의에서 오기나와문제들 공식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 닉슨 대통령 학원의 자유성을 강조

(워싱턴 3월25일 밤,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대략본쟁을 싸고 22일 이해의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의 각대학에서의 집시의 유지를 호소하였다. 동대통령은 특별성명에서, 대학의 자유가 위기에 더러져있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대학의 자치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무책임한 학생의 폭력에 엄한 법을 적용하도록 호소하였다. 그러나 한편 닉슨대통령은, 정부가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치의 원수에 압력을 가할수없다고 말하는 동시에, 대학의 운영은 교육활동의 문제들을 싸고, 학생들의 주장도 드러야한다고 말하고, 대학측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띄었다.

### 아폴로 11호 달에는 착륙연기

(워싱턴 25일 밤, 공동) 미항공우주국은 24일 "5월18일에 발사되는 우주선 아폴로 11호는 달주위 회전비행을 하고, 달 착륙은 하지 않는다" 라고 발표하였다. 이결과 달착륙의 일은 아폴로 11호로 행하여지는 것이 확정하였다. 아폴로 11호의 최대의 목적은 달구도상에서 달착륙선에 더러져있고 달착륙선은 달 표면으로부터 1만5천2백40미터이내에까지 강하하는 것에 있다. 우주항공국의 일부에서는, 9호에서 달착륙선의 안전성이 확실하다고 하고, 11호를 기다리지 않고, 10호로 달착륙을 하여야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 데, 달구도상에서의 달착륙선의 타아 강하 재결함의 시범을 하고, 안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고 한다.

### 사망 광고

동지 회외상부원이신 구베이스.유순.한 노인은 93세를 일기로 3월21일에 고이 운명하셨는데, 장례식은 25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누아누장예소에서 개관식 조의식과 김치현목사님의 주례하의 기도회가 있었고, 이어 26일 오후 9시부터 아오 1시반까지 개관조의식이잇슨우 김치현목사님의 주례로 영결식을 거행한후 말인하여 장례소매장지에 안장하였다. 유가족으로는 딸 네분과 손자손녀 10명, 28명의 증손이잇고, 8명의 증증손이잇다. 딸들의 시명은 에스더 김여사, 김락성씨부인, 아니라.쇄크윳스여사, 칼.강부인이다. 고한여사가 생존시에 여러한인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자손들의 지극한 효를 보시고 영면하신것을 일반은 행복하게생각하고잇다.

### 대한인부인구제회 창립기념식

1969년 4월1일은 아와이대만인부인구제회가 창립된지 반세기인 50주년을 마지막에 되는 기념경축 날이인데, 이날이 마침내 일요일인고로 하나님께 정배를드리고 그후 부인구제회에서 사교실에 준비하여는 오찬을 먹은후 아오시반부터 부인구제회기념경축식이 거행됩니다. 많은 회원들께서는 안본도 바집이업시 출참하셔서 이날을 경축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인구제회 회원이 아니신 남녀유지인사들께서도 많이 태참하셔서 같이 기쁨을 나누시기를 요망합니다.

오랑지방부인구제회 회장

차 영 욱 윤림

### 주말 재 정 보 단

년매금	오랑	차 영 욱	10.00	릴리라	토매리	10.00	의위아와	변 익보	10.00
주보대금	오랑	차 영 욱	10.00	릴리라	배원배	10.00	의위아와	강 순근	10.00
적립금	의위아와	변 익보	2.00						

